

02

행복한 군포

청소년의 푸른 꿈을 키우다  
군포의 청소년교육지원사업

08

책나라군포

뮤지컬·연극이 함께한  
'2017 군포의 책' 선포식

10

군포인터뷰

독서 습관, 가정에서부터 만듭니다  
'2016 책 읽는 가족' 오은아 씨 가족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 페이스북 facebook.com/gunpocity
- 블로그 blog.naver.com/o2gunpo
- 트위터 twitter.com/gunpocity

<군포소식> 정기구독 신청(무료)  
☎ 군포시청 홍보실 031-390-0663



책·철쭉·행복·성령도시 군포

# 책나라군포

#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03

2017 MAR  
제 356 호

발행일 2017년 3월 1일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gunpo 군포시 홍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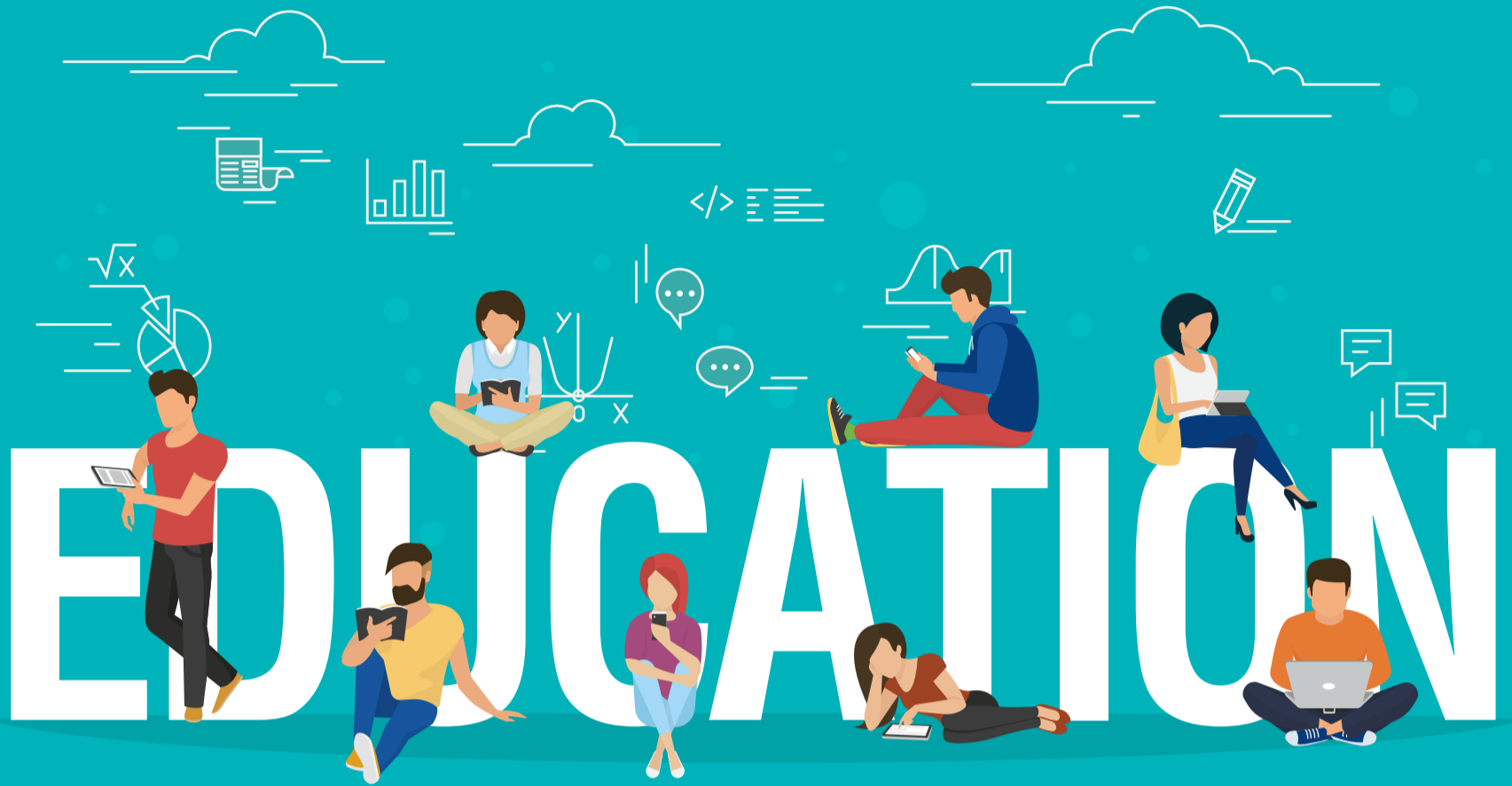
TEL 031-390-0663  
WEB www.gunpo.go.kr  
E-mail gunpo-city@nate.com



**‘2016 책 읽는 가족’  
오은아 씨 가족의 도서관 나들이**  
군포시 도서관 회원이 된 지 10년  
도서관은 오은아 씨 가족의 두 번째 집입니다.



군포시청이 발행한 <군포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의 푸른 꿈을 키우다 군포의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군포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정을 추진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교육 1번지' 군포를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 전국 제일의 청소년교육특구, 희망교육 1번지를 꿈꾸다

군포시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청소년을 위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05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각종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교육특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문대 입사율은 해마다 1~3%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문을 열어 2015년 10월까지 운영된 '군포국제교육센터'는 월 수용인원이 2,500명 이상인 대규모 교육 시설로,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원어민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시는 이곳을 개보수한 후 평생교육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시설을 올해 안으로 옮겨올 예정이다. 언어능력 및 기술, 교양교육과 독서교육을 통합해 군포시의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또, 시는 교육과 관련해 '책 읽는 군포'를 주요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독서문화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학교환경 개선, 국제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안전도시 구축 등 맞춤형 청소년 교육 지원정책으로 '희망교육 1번지'를 만들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교육이 으뜸인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군포시의 대표 청소년 육성사업을 소개합니다



### 공교육 강화

#### 청소년 국내문화 탐방(연중 3회~4회)

청소년들에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현장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감수성 및 협동심 증진

#### 수험생을 위한 해피랜드(12월)

중·고등학교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 및 문화적 공감대 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 마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연중)

맞벌이, 한부모 및 장애취약계층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문화적 격차를 보완

#### 청소년 과학문화 페스티벌(봄, 가을)

철쭉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과학 체험부스 운영과 로봇전시 및 사이언스쇼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 충족 계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 문화교육(연중)

학교폭력 및 인터넷 문제에 대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 문화교육 지원을 통한 청소년 문제의 사전 예방과 인성교육 실시



### 국제적 인재 양성

#### 고등·대학생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7~8월)

청소년들에게 해외 대학생활 연구 기회를 제공해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외국문화 이해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국제적 인재로 양성

#### 군포시 영어캠프(1월, 7월, 8월, 12월)

방학 기간 동안 원어민 교사와 숙박형 영어캠프를 운영해 지역 초등학생의 영어활용 능력 증진을 돕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심신 단련을 도와 미래 인재로 육성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연중)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학생들의 회화능력 향상에 기여

#### 중·고등학생 해외 우리문화 탐방(7~8월)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 탐방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민족의 얼을 갖춘 인재로 양성

#### G-러닝 방과후 영어 학습 지원(연중)

초등학생들에게 G-러닝 방과후 영어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 방과후 교육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 교육 특구를 한층 발전



### 학생 복지 실현

#### 학교 환경개선사업(연중)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좋은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여 세계적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방문 상담(연중)

청소년들의 위기 긴급개입을 통한 자살예방 방지, 진로 변경으로 인한 학업 부적응 학생 치료 등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담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상담

#### 학교 전문 상담사(연중)

일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을 통한 정상생활로의 복귀,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상담사 배치

#### 사회복지사 지원(연중)

학생 중심의 학교-가정-지역사회 통합적 지원 구축으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위기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사전 예방을 통한 건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각 학교에 배치

## 도시 경쟁력 전국구 1위 군포

인구 50만 미만 도시 가운데 경쟁력 최상으로 확인

군포시가 인구 50만 미만의 국내 시(市) 단위 자치단체 60곳 가운데 도시 경쟁력 1위 도시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시행해 2월 15일 발표한 '지자체 평가'에 따르면 군포는 인구 50만 미만 도시 그룹에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재정력이 가장 우수하고, 자치역량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군포는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앞서 2015년 9월에 군포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가 공동으로 조사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전국 2위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인구 50만 미만 도시 가운데 경쟁력 1위라는 결과가 객관적 통계지표와 주민 설문 조사로만 도출돼 더욱 뜻깊고,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시민들이 생활경제 분야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인 점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보완,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발표에서 재정 건전성, 안전,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경쟁력 상위로 확인된 분야의 사업은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통계적·사회적 여건상 미흡 평가를 받은 생활경제 분야는 보완 정책을 개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보실 390-0663

## 2017 군포철쭉축제 4월 28일 개막

3일간 철쭉의 나라 되다... 시, 축제 TF팀 발족



군포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봄철 행사, 철쭉축제를 오는 4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2017 군포철쭉축제'는 4월 28일 개막해 30일까지 개최되는데, 군포시민을 포함해 전국에서 찾아올 관람객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행사를 만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군포철쭉축제는 도심 내 약 20만본의 철쭉 군락이 조성된 군포의 명소 철쭉동산과 인접한 철쭉공원, 시민체육광장, 산본로데오거리 등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행사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는 총 62만여명(5일, 하루 평균 12만4천여명)이 찾은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처음으로 시행된 철쭉동산 앞 '차 없는 거리' 운영은 다양한 거리공연과 관람객 참여 이벤트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시는 축제 기간을 줄였지만, 행사의 질은 높여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행사를 주관할 군포문화재단 실무자와 시 홍보실 예술팀 담당자, 축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지난 2월 9일 발족했다. 동월 15일에는 시장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 조직위원회를, 28일에는 군포경찰서와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축제 성공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2017 군포철쭉축제 상세 정보는 조만간 오픈될 공식 홈페이지(www.gunpofestival.org)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군포문화재단 또는 시 홍보실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보실 390-0664 / 군포문화재단 390-3502

## 한 눈에 보는

# GUNPO



### 군포, 지역 내 공군 부대와 산불 예방 협조체계 구축

군포시가 보다 강력한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를 갖 추기 위해 최근 지역내 주둔 중인 공군 제8249부대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 예방·진화의 최선이 빠른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라는 사실에 공감한 양 기관은 수리산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군 부대는 수리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과 이점을 활용해 시의 산불 감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 산불 진화 인력을 지원한다. 시는 이에 맞춰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카메라와 산불 예방진화대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 위험 기간에는 진화 헬기가 수리산 자락에 항시 대기해 초동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공원녹지과 390-0435

### '우리동네 희망이웃' 프로젝트 시행

군포시가 안전사고 또는 범죄 등에서 상대적으로 극히 취약한 지적·자폐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군포시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우리동네 희망이웃'이란 이름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지적·자폐 여성장애인의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장애인복지관은 고등학생 이상의 남녀 봉사자를 연중 모집한다.

월 1회 이상 활동 가능한 봉사자, 관련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참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 390-0376

군포시장애인복지관 399-1887

### 수리산역 육교에 승강기 설치 추진

군포시가 전철 4호선 수리산역 1번 출구와 연결된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용이 불편·저조하고 낡은 육교는 철거해 횡단 보도를 설치하는 것과 달리 필수 보도육교는 편의성을 강화해 이용 시민의 편리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승강기 설치 사업은 장애인과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것으로, 육교 양쪽에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휠체어 이동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건설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건설과 390-0360



# 군포에는 누가 누가 살고 있나?

## 2016년 군포시 사회조사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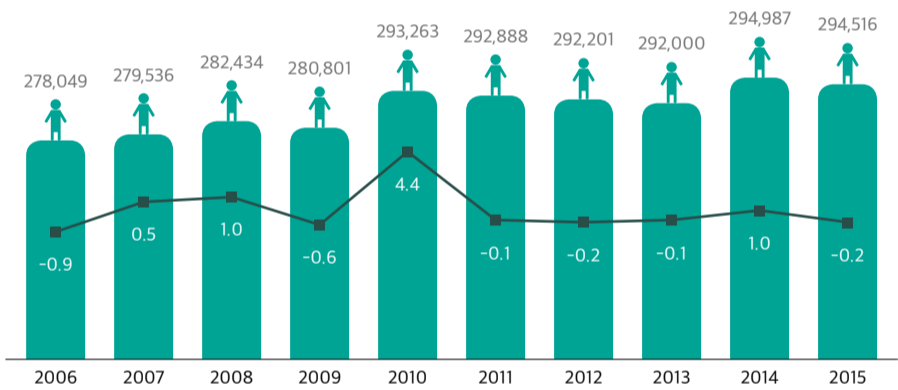
군포시에는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 살고 있을까?  
군포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제6회 군포시 사회조사를 시행했다. 그중 인구 현황을 중심으로 결과를 알아보자.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6년 8월 29일 ~ 9월 30일(기간 중 25일)
- 조사요원 23명(관리자, 조사요원, 내검요원 포함)
- 조사대상 관내 표본가구 800세대(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부)
- 조사항목 6개 분야, 공통항목(37개) + 특성항목(8개)으로 구성
- 조사방법 1:1 대면 방문 및 면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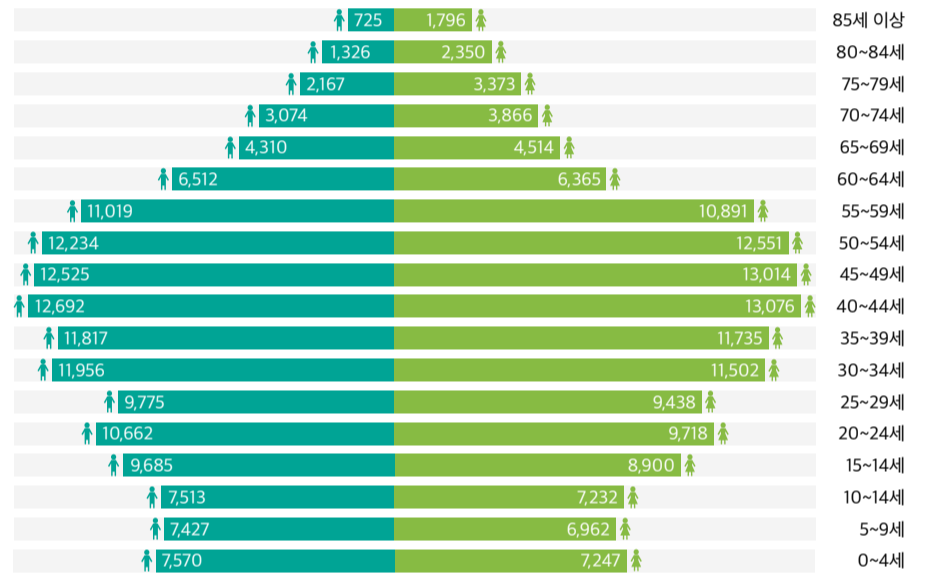
### 총인구

총인구는 294,516명으로 전년 대비 471명(-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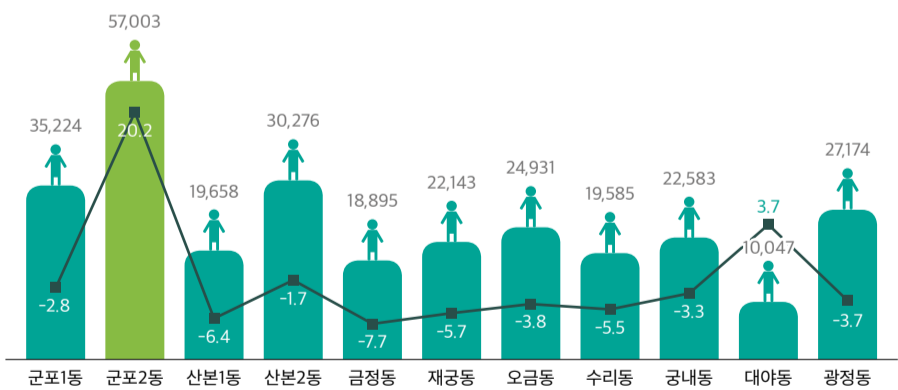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

30~40대가 많고, 50대 이상 인구는 2011년 대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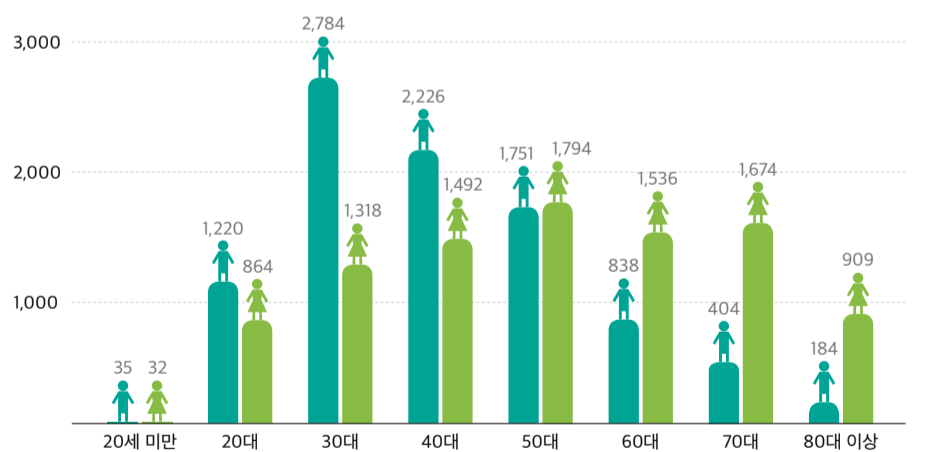
### 행정구역별 인구

군포2동 인구가 2011년 대비 20.2% 상승해 뚜렷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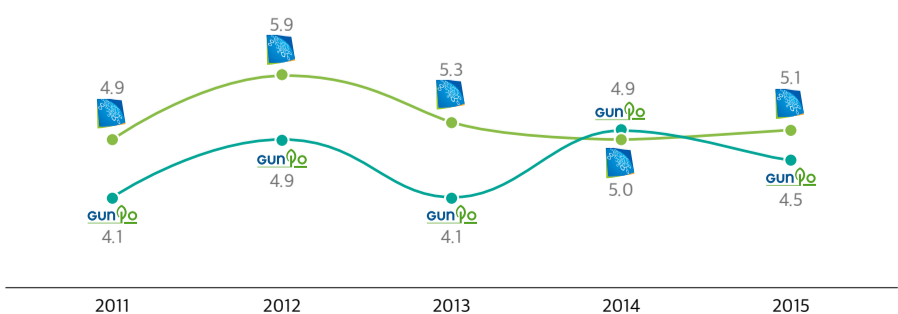
### 1인 가구

30~40대(총 가구의 17.8%) 1인 가구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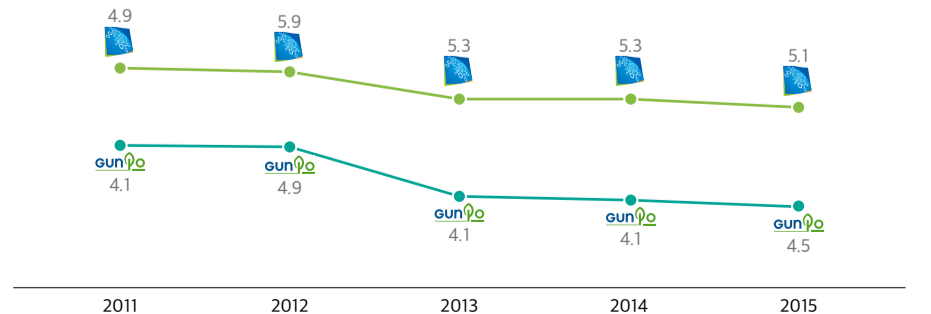
### 노인 인구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총인구의 9.6% 차지



### 출생 및 사망

2015년 출생아 수는 3,191명 / 사망자 수는 1,007명



# 군포시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조례란?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듯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군포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례가 있으며, 시민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조례의 제한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것인 만큼 몇 가지 제약이 있으며 그 범위도 한정된다.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 상위 법률이나 상위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이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

## 조례의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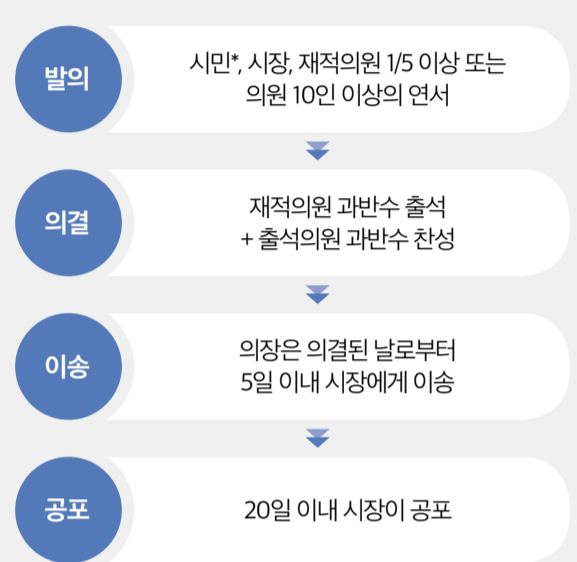
군포시민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거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제안하게 된다. 공청회나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의 결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 재의 요구

재의요구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의회사무과 390-8713

## 조례 제·개정 절차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2017년 1월 기준)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232,793명  
연서 주민 수: 4,656명(적용 비율 2%)

## [인터뷰]

# 복지가 곧 '사회적 투자'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경행 부의장

## Q. 조례 발의와 제정 배경은?

A.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계층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목표도 사회복지 확대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군포시 역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다양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6대 군포시의회 활동 당시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Q.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A.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대하며 갖은 격무와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급여 수준 역시 복지담당 공무원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 파악조사가 필요했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기초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급여 부분도 적어도 공무원 수준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 Q. 조례 발의 후 변화된 점이 있다면?

A. 2015년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 상황이 나은 편이나, 지역별로 있는 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 급여는 공무원 대비 50% 정도였고요.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존재하듯, 사회복지사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 Q. 마지막 전하고 싶은 한마디

A.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의 복지가 시혜 혹은 수혜라는 일방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복지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결국 사회적 재생산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지는 곧 사회적인 투자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의회 단신

## 군포시의회, 장애인연합회 간담회 실시



군포시의회는 지난 1월 20일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장 등 단체장 8명과 간담회를 했다.

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 등 발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련 시책 개선 방안을 찾는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석진 의장은 "새해를 맞아 간담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체장님들과 만남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포시 상업과 문화의 중심

전철 4호선 산본역

글 편집실 사진 주효상



## 산본역의 山本驛

산본역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중 안산선의 역으로, 대규모 민자역사 중 한 곳이다. 금정역과 수리산역 사이에 있는 산본역은 1992년 5월 1일 운전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1월 15일 보통역으로 승격됐다.

역명은 '산본'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는데, 산본(山本)은 수리산을 바탕으로 이룩된 마을이란 뜻이다. '야마모토(山本)'라는 명칭이 일본의 성씨·지명 중 하나이고,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역(야마모토역)이 일본에도 존재하는 등 산본신도심 조성 당시부터 '산본(山本)'이라는 명칭이 왜색 명칭이라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조선 정조 때도 '과천현 남면 산본리'라는 지명이 등장하기에 왜색논란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산본역은 역사 내에 복합 쇼핑몰, 바로 근처에 산본로데오거리(산본중심상가), 인근에 군포시청·군포경찰서·군포우체국·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상권·주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군포의 상업·행정·문화의 중심거점이라 불리도 손색이 없다.

군포를 처음 찾는 사람들은 산본역을 빠져 나오거나,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중심상가에 접근하면서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불야성이란 단어가 실감으로 다가오는 곳이 바로 산본중심상가이다. 군포지역에 산본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새로이 조성된 중심상업지역은 군포시민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2. 군포시청 삼거리



산본역 이용 승객(1일 기준)

• 승하차 4만5천명

산본역 열차 운행(평일 기준)

• 4호선 264회(상·하행)

출처: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 뮤지컬 · 연극이 함께한 '2017 군포의 책' 선포식

<휘둘리지 않는 힘>과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로 독서 장려 시작



1월 24일 오후 3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7 군포의 책' 선포식이 개최됐다. 군포시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해마다 열었던 행사지만, 이날 진행은 좀 특별했다.

'군포의 책'으로 선포된 도서가 1권이 아닌 2권이라는 점과 세종대학교 박인용 교수 지도로 세종대 연극팀이 2편의 연극을 선보여 선포식을 종합문화예술 행사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대 연극팀은 <휘둘리지 않는 힘>과 관련해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명장면을 뮤지컬로 재현하고,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내가 보여요?'란 직접 창작한 연극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2017 군포의 책 선포'는 김윤주 군포시

장, 김무곤 · 김진희 작가, 박현태 군포의책선정위원장, 어린이대표 연구서 학생(둔전초, 산본도서관 소속 토론꿈나무 독서동아리 회원)이 군포지역 내 문화 예술인과 다양한 지역단체 관계자 등 시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했다.

이날 김윤주 군포시장은 "초등생 이하의 아동이 군포의 책을 읽기에 쉽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 2017 군포의 책으로 성인 · 청소년 도서와 아동 도서를 1권씩 선정해 독서문화운동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공공도서관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연중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책읽는정책과 390-0905**

## 이달의 추천 도서



### 01 아동 도서

####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글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 을유문화사

아들러 열풍을 몰고 온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의 육아서. 아이가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도움을 주고, 공동의 과제도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 02 청소년 도서

#### 우정이 맘대로 되나요?

글 문지현, 박현경  
출판사 글담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6명의 사춘기 여학생들이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고민을 편지로 풀어놓는다.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답장을 보내 해결책과 함께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한다.



### 03 성인 도서

#### 아무도 무릎 꿇지 않은 밤

글 목수정  
출판사 생각정원

한국과 프랑스의 경계에 선 저자는 매일 밤 진실을 찾아 어디론가 글을 띄워 보내며 세상과 소통했다. 그렇게 건져 올린 잃어버린 일상의 가치, 회복해야 할 시대정신을 책에 담았다.

## 단신뉴스

### <밥이 되는 인문학> 지혜와 감성의 융합

- 일시 3월 23일(목) 14:00
- 장소 군포시청 대회의실
- 강사 김경집 작가
- 주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적 성찰은 무엇인가?
- 문의 책읽는정책과 390-0902

### 군포시 5개 도서관, 60여개 정기 강좌로 독서활동 제공

군포시 산본 · 당동 · 대야 · 부곡 · 어린이 도서관이 3월부터 총 60여개의 정기 강좌를 운영한다.

생애주기별로 구분된 강좌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각 도서관은 실버(산본), 다문화(당동), 천문(대야), 가족행복(부곡), 어린이(어린이)라는 주제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만족도를 충족하려 노력 중이다.

또 시는 매월 넷째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독서 통장데이, 책표지로 가방 만들기, 도서관 책 속 보물 찾기 등의 특별 행사를 도서관에서 진행해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산본도서관은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27일부터 3일간 시설물 배치 및 보수 공사를 위해 휴관한다.

산본도서관 390-8842

### 독서 시설 보유 장서 223만여권 하루 평균 1만 1천명 이용

군포시는 시가 관리 · 지원하는 독서 시설에서 보유 중인 도서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23만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6개 공공도서관 장서만 104만권이고, 작은도서관 38개소와 리틀라이브러리 10개소, 미니문고 35개소와 야외북카페 9개소, 학교도서관 46개소, 책읽는아파트 9개소, 책읽는카페 10개소 등의 도서를 다 합치면 223만여권이라는 설명이다.

책만 많은 것이 아니다. 군포시중앙도서관은 최근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6개 공공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에 따르면 하루 평균(주 5일) 1만 1천여명이 독서 및 독서체험활동 참여 등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 동안 도서관 총 이용자 수가 353만명(연간 누적)이고, 대출 도서가 126만권에 달한다는 자료가 이를 입증한다.

한편 시는 국 단위 조직인 책읽는사업본부 주관으로 6개 공공도서관 등에서 연중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시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go.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중앙도서관 390-8874

# 일본 이름의 한국인이 말하는 독도

2017 군포시민자치대학 3월 강연... 12월까지 10강 시행

일본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증명한다.

군포시가 열린 평생교육을 위해 매년 무료로 운영(3월~12월)하는 군포시민자치대학 2017년 첫 강좌에 참여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시는 3월 8일 호사가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초빙, '국제법으로 본 독도'라는 주제의 강의로 올해 군포시민자치대학의 문을 연다. '독도지킴이'라고도 불리는 호사가 유지 교수는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대해 공부하다 2003년 귀화한 정치학자다. 그런데도 기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호소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지 교수의 이야기 외에도 군포시민자치대학은 10개의 다양한 이야기를 마련했다. 12월까지 매일 흥미진진한 강연이 이어진다.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

재열,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국악인 오정해 등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각 강의는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 희망 시민은 3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인터넷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나 책읽는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장려를 위해 강의 시작 전 동아리 재능기부 릴레이 공연 시간도 마련한다. 동아리에는 공연을 통해 재능을 뽐낼 기회를, 강연 참여 시민에게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기타 더 자세한 2017년 시민자치대학 수강 신청, 동아리 공연 참여 신청 정보는 시 책읽는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786

일정	주제	강사
3월 8일(수)	국제법으로 본 독도	호사가 유지(세종대 교수)
4월 12일(수)	4차 산업혁명과 이모작 사회	김태유(서울대 교수)
5월 10일(수)	행복한 세계 감성여행	김재열(스토리텔러)
6월 14일(수)	나, 정답을 묻다	송길영(다음소프트 부사장)
7월 12일(수)	인성이 실력이다	조 벽(동국대 석좌교수)
8월 9일(수)	거침없이 상상하고 실행하라	전병삼(미디어 아티스트)
9월 13일(수)	소리 이야기	오정해(국악인)
10월 11일(수)	두뇌장수와 치매예방	서유현(가천대 석좌교수)
11월 8일(수)	인공지능 로봇과 미래	한재권(한양대 교수)
12월 13일(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	유인경(작가, 방송인)

## 3월 G시네마 '다양성 영화' 무료 상영



**백야**  
3월 6일(월)  
감독 테일러 핵포드  
장르 드라마  
등급 12세 관람가  
시간 136분



**까미유 끌로델**  
3월 13일(월)  
감독 브루노 누이팡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150분



**버드맨**  
3월 20일(월)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장르 드라마  
등급 청소년 관람불가  
시간 119분



**위플래쉬**  
3월 27일(월)  
감독 다미엔 차젤레  
장르 드라마  
등급 15세 관람가  
시간 106분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 단신뉴스

#### 군포생동감 생활문화동호회 모집

- 일시 3월 1일(수)~31일(금)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카페, 이메일 또는 팩스
- 제출내용 동호회 등록서(동호회 정보 및 회원명부) 1부
- 신청자격 군포시민 최소 50%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 지원사항 동호회 네트워킹, 교육, 워크숍, 생활문화제 및 대외교류
- 문의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팩스 031-395-7666)  
※ 온라인카페 <http://cafe.naver.com/gunpolan>

#### 군포나누미학교 3월 프로그램

- 일시 3월 2일(목)~31일(금)
-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 대상 군포시민(강좌에 따라 수강대상 제한 가능)
- 내용 자연을 품은 구중궁궐·창덕궁·답사등 24강좌
-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 신청 네이버카페 군포나누미학교 <http://cafe.naver.com/gpnanumi>
- 문의 (재)군포문화재단 390-3071~3

#### 성인문해교육 느티나무학교 운영

- 운영기간 3월 6일(월)~2018년 2월 23일(51주)
- 장소 여성회관 4층 희망교실
- 대상 초등학교 미취득 성인
- 내용 기초 문해교육 및 초등학교 인정과정 운영
- 모집인원 4개반 100명
- 수강료 30,000원(1년)
- 신청 선착순 방문(여성회관 1층 사무실)
-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 제3기 대학생 멘토단 모집

- 모집기간 3월 17일(금)까지
- 대상
  - 2·3·4년제 대학(원)생 ※휴학생 신청 가능
  - 청소년의 진로멘토가 되어 줄 책임감 있는 대학(원)생 누구나
  - 멘토링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 내용 군포시 중·고등학교에서 일일 진로교사
- 모집인원 2·3·4년제 대학(원)생 30명
- 문의 군포시진로체험지원센터 390-1427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 2017년 봄학기 추가회원 모집

- 일시 3월 21일(화)~마감시
- 대상 유아~성인 누구나
- 내용 창의 교육, 문화교육, 건강체육 등 150여개 전문 강좌
- 문의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90-1400

# 독서 습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요

‘2016 책 읽는 가족’ 오은아 씨 가족



최근 군포시 5개 공공도서관(산본·당동·대야·부곡·어린이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의 모범이 되는 다독 가족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이면서 도서 대출량이 많고, 연체 기록 등이 없는 이설화·이선미·오은하 씨 가족을 ‘2016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했다. 이 중 오은하 씨 가족을 만나 책과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리 김은 사진 김은늘

‘책 읽는 가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의 하나다. 오은하 씨 가족은 구성원 4명(조용진(39), 오은하(38), 조유성(10, 신기초3), 조유빈(8, 신기초1))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629권(월평균 78.6권, 1인당 19.7권)을 읽어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

**‘2016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은하** 산본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놀라우면서도 의아했어요. 우리 가족이 규칙적으로 책을 빌려보긴 했지만,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될 만큼 대표성이 있거나 특출나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가족 중 포함됐다는 게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평소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대출해 보셨나요?**

**조용진** 아내는 군포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주로 주말을 이용해 도서관에 다닙니다. 가족이 모두 회원으로 등록돼 있

어 한 사람당 7권씩 빌릴 수 있으니 저희 식구 4명으로 치면 총 28권, 대출 기간도 기본 2주지만 전화로 신청하면 1주일 연장이 가능해서 대출 권수나 기간이 넉넉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데, 둘째가 아직 어려 저희가 읽어줄 만한 책을 빌리곤 합니다.

**유성이 친구는 도서관 다니는 게 왜 좋아요?**

**조유성** 저는 과학자도 되고 싶고, 야구선수도 되고 싶어요. 직업을 가지려면 그 직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책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모험소설인 <13층 나무집 시리즈>를 재밌게 읽고 있어요. 도서관에는 읽고 싶은 책도 많고 엄마·아빠와 같이 다녀서 더 좋아요.

**군포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오은하** 10년 전 결혼생활을 군포에서 시작했어요. 부곡동 삼성마을로 이사 오면서부터 부곡도서관과 대야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데, 군포는 정말 도서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걸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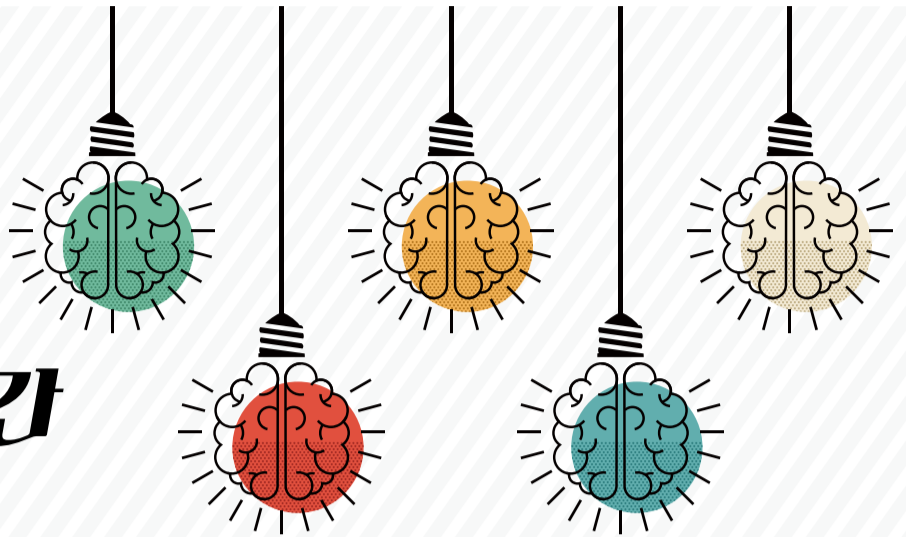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서관 하면 낡은 책을 떠올릴 수 있는

데, 군포 도서관은 낡은 책을 주기적으로 새 책으로 바꾸고 있어 언제나 깨끗한 새 책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은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바로바로 구해볼 수 있고요. 또, 도서관마다 연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산본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부곡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군포라고 생각합니다.

**군포시민에게 도서관 이용 팁을 알려주세요.**

**조용진** 저희는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나오진 않습니다. 도서관만을 간다고 생각이 들면 자칫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일부러 나오지 않고 일을 본 후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른다는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잠깐 들러 책을 빌리고, 잠깐 들러 반납하고... 자주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습관이 돼서 가족 모두 도서관을 애용하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듯이 도서관 다니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 창의력 쑥쑥, 상상력 쑥쑥 재미가 함께하는 문화공간



군포시 평생학습원 상상극장

군포시 평생학습원 5층에 위치한 상상극장은 2006년 2월 개관한 이후 군포시민을 위해 정기공연, 문화예술감상교육,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일 2017년의 상상극장을 미리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재)군포문화재단

## 온 가족이 즐기는 감동과 재미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 평생학습원은 2017년도 상상극장 정기공연 일정을 확정해 올 연말까지 10종의 다양한 공연을 매월 선보일 예정이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5층에 위치한 상상극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어 군포시민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형극, 연극, 버블쇼, 마술쇼 등 온 가

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매월 열흘간 20여회에 걸쳐 선보였다. 전래인형극 ‘깨비깨비 흑부리영감’, 창작인형극 ‘파란토끼 룰루의 모험’, 가족연극 ‘거리 위에 빨간모자’ 등의 정기공연이 상상극장을 찾은 군포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 상상극장에서는 철쭉축제가 예정돼 있는 4월과 추석명절이 있는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 동안 퍼포먼스, 드로잉서커스, 마술쇼 등 총 10가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습원 관계자는 “상상극장 정기 공연은 올 한 해

동안 국내 유명 퍼포먼스팀과 인형극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알찬 공연을 준비한 만큼 시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상극장 정기공연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원 홈페이지(www.happygp.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390-3054~5



## 2017 상상극장 안내

회차	작품	구분	내용	일시
172회	판타스틱 매직쇼	마술&체험	판타스틱한 마술과 체험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월 21일(화) ~ 4월 8일(토)
173회	제랄다와 거인	종이컵 인형극	종이컵으로 꾸며지는 인형극 이야기, 함께 떠나 볼까요~	5월 16일(화) ~ 27일(토)
174회	아기사슴섬 천사들	종이컵 인형극	음악과 인형이 함께 어우러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6월 13일(화) ~ 24일(토)
175회	그림형제	그림동화 인형극	괴짜형제가 들려주는 독일 그림동화 이야기	7월 4일(화) ~ 15일(토)
176회	난 타잔이다!	복합 인형극	밀림 속에서 펼쳐지는 타잔과 친구들의 이야기	8월 16일(수) ~ 26일(토)
177회	어린이왕자	명작 인형극	생텍쥐페리의 어린이왕자를 인형극으로 만나는 시간	9월 12일(화) ~ 23일(토)
178회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 인형극	대표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인형극으로 볼 수 있는 기회	11월 14일(화) ~ 25일(토)
179회	구둣방 할아버지와 꼬마요정	마리오네트 인형극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를 상상극장에서 만나다	12월 5일(화) ~ 16일(토)

- 공연 시간 화~목 11:00, 16:00 / 금 11:00, 16:00, 19:30 / 토 11:00, 14:00
- 공연 장소 군포시 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군포시 고산로 263)
- 대상 24개월 이상
- 관람료 일반 8,000원 / 회원 6,000원(금요일 저녁은 아빠 무료)
- ※ 3월, 5월 공연은 체험이 포함된 관계로 입장료에서 2,000원 추가
- 티켓 구매 평일 09:00~21:00(토요일은 18:00까지) 평생학습원 2층 사무실 방문 구입
- ※ 공연 당일 5층 상상극장 앞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
- ※ 단체예약 접수 시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관람 가능



## “보안관이 지켜주는 우리 마을”

궁내동·수리동 ‘우리 마을 보안관’ 간담회 개최



아이들 안전을 챙기며, 생활 불편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생활자치의 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우리 마을 보안관’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이 그들이다. ‘우리 마을 보안관’들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 동에 전달하고, 미담을 널리 퍼트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과 10일 수리동과 궁내동 주민센터에서는 각각 ‘우리 마을 보안관’ 운영 간담회가 개최됐다. 각 동의 보안관 8명은 이날 회의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가 행복한 마을을 위해 보안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통장 공개모집 결과 공고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통장 공개모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군포2동

- 통별 1통
- 성명 이동근(남)
- 관할구역 군포시 당동로21번길 52 무지개마을 케이씨씨아파트 101동~103동  
군포시 당동로21번길 34, 무지개마을2차케이씨씨아파트 104동
- 위촉기간 2017. 2. 15~2020. 2. 14

### 금정동

- 통별 6통
- 성명 유이순(여)
- 관할구역 군포시 금정동 764-27~37, 764-66, 764-75, 764-38~46, 764-50~58, 764-13~26, 755, 764-47~49, 764-59~65, 764-73~74, 764~764-11, 764-67~72
- 위촉기간 2017. 2. 6~2020. 2. 5

### 재궁동

- 통별 4통
- 성명 이주호(남)
- 관할구역 군포시 번영로 580 신환아파트 101동~102동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통별 32통
- 성명 윤석울(여)
- 관할구역 군포시 금정동 716-1~22, 714, 719, 719-1, 719-22, 847, 847-1, 847-4, 848, 886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수리동

- 통별 3통
- 성명 김순주(여)
- 관할구역 군포시 수리산로 40 수리아파트 811동~814동
- 위촉기간 2017. 2. 13~2020. 2. 12

- 통별 15통
- 성명 현경희(여)
- 관할구역 군포시 수리산로 71 덕유아파트 871동~873동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광정동

- 통별 5통
- 성명 권윤경(여)
- 관할구역 군포시 산본천로 12 을지아파트 615동~616동, 625동~627동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통별 13통
- 성명 권미승(여)
- 관할구역 군포시 산본천로 34 세종아파트 649동~651동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통별 14통
- 성명 정란희(여)
- 관할구역 군포시 광정로 122 주몽2차아파트 1001동~1002동, 1016동
- 위촉기간 2017. 2. 1~2020. 1. 31

## 따끈따끈한 군포소식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만나보세요!

- ✓ 알게되면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 이야기와 뉴스
- ✓ 주말엔 뭐 할까? 일정별로 확인되는 동네 행사
- ✓ 우리 동네, 군포시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생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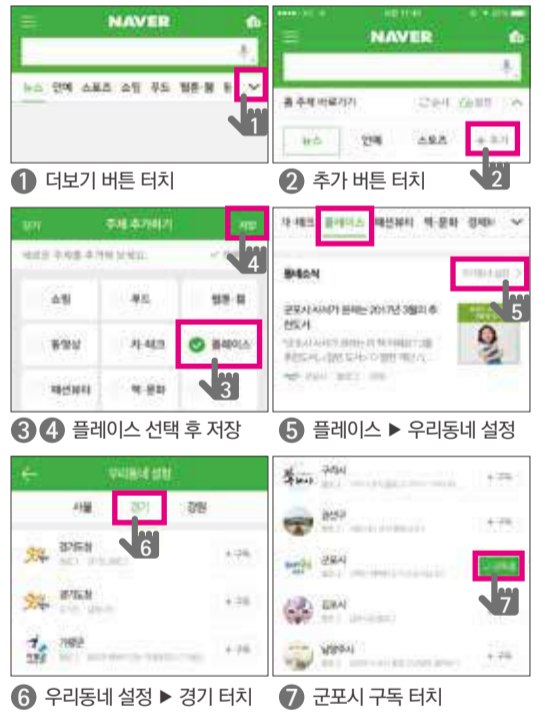
## 모바일 전용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군포시 소식을 받는 두 가지 방법

### 1. QR코드로 설정



- 1 마이크 아이콘 터치
- 2 QR코드 아이콘 터치
- 3 위 QR코드를 찍는다.

### 2.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서 설정



- 1 더보기 버튼 터치
- 2 추가 버튼 터치
- 3 4 플레이스 선택 후 저장
- 5 플레이스 ▶ 우리동네 설정
- 6 우리동네 설정 ▶ 경기 터치
- 7 군포시 구독 터치

## 동네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널리 알리고 싶은 동네의 자랑, 가슴이 따뜻한 질 아름다운 미담 등 행복한 우리 동네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군포소식〉이 이웃사촌들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 접수 이메일 gunpo-city@nate.com
- 문의 홍보실 390-0663

## 설국의 빛과 그림자

박민역 | 군내동

지난 1월 '한·일의 역사와 미래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5박 6일간 삿포로 여행을 다녀왔다.

앞의 3일은 즐거운 관광이었다. 비록 소설 설국에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지만, 진짜 '설국(雪國)'을 경험했다. 겨울철이면 눈이 1m 이상 쌓이는 곳이라서 눈 구경을 원 없이 했다.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은 그야말로 자연의 분리대 역할을 했다. 흰 눈으로 쌓인 삿포로, 오타루는 평온함과 신비로움을 주었다. 아사리가와 온천의 노천탕에서 눈을 맞으며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경험은 두고두고 되새길 추억이 됐다.

남은 일정은 한일 교류 회의였다. 역사를 담당 한일 양국의 교사들은 서로 간 거리를 확인했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하면 '하이(はい, 네)'를 연발하면서도 고치지 않는다. 수정요구 자체가 그들에게는 '메이와쿠(迷惑, 폐)'였던 셈이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얼핏 쌍둥이처럼 보이겠지만, 환경이 워낙 다르고 비슷한 듯하면서도 한 꺼풀만 벗겨내면 다른 면만 잔뜩 보인다.

삿포로 옛 시청의 박물관에 가보니, 홋카이도 개척사와 북방 4개 섬 문제만 잔뜩 진열돼 있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영토 욕심에 대한 치밀함과 끈기에 섬뜩한 마음마저 느꼈다. 친절하지만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그들을 보면, 알면 알수록 멀게만 느껴진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한 일행이 멋진 말을 남겼다. "일본은 일주일 지내면 딱 좋은 나라다. 그 이상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귀국 며칠 후에 눈이 내렸다. 햇빛에 반사되는 눈 빛을 보니, 얼음층이 켜켜이 쌓여있는 삿포로의 두툼한 눈길과 일본인의 꼭꼭 감춰둔 어두운 '혼네(本音, 속마음)'가 겹쳐 보였다.



## 이렇게 좋은 날에

김지혜 | 군포1동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 쌓여  
내 이름을 제목으로 단  
소박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멈추지도  
그러나  
서두르지도 말고  
천천히  
계절이 제시간에 도착하듯 그렇게

이렇게 좋은 날  
꽃향기 흠날리듯이  
이 하루도 그분의 향기가 되길



## 숨은그림찾기



## 새로운 도전, 일본어 공부!

안경주 | 군내동

결혼 8년 차 육아 7년, 엄마라는 이름으로 정신없이 살다 둘째 아이가 4살이 되어 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며 조금씩 제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민센터에서 일본어 강좌를 재능기부로 무료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일본어를 접해본 적이 없어 지금 나이에 가능할지 걱정하며 수강 신청하고 수업에 갔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다수 수강생이 50~60대 어르신으로 모두 저의 부모뻘 되시는 분들이셨지요. 제가 이 수업의 가장 막내였어요! 또 재능기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70이 넘으신 어르신 이었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열정을 다해가며 배움을 익히고 재능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젊은 나이에 게으름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산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어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주 수업을 참석하며 그분들의 열정과 용기에 다시 한번 저를 다잡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여행에서 제가 가족 가이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될 때까지, 저 역시도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하려 합니다.

끝으로 재능 기부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숨은그림** 마우스(컴퓨터 입력장치), 조각 피자, 고무장갑, 카메라, 종, 콜라병, 은행잎  
**수수께끼** 군포시평생학습원 'OO극장'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 11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2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군포소식>이 시민 원고를 기다립니다

**제출방법** 이메일 gunpo-city@nate.com, 매월 접수

**원고분량** 150자 이상 900자 이내(글자 10포인트 기준), 시는 자유

**문의** 군포시청 홍보실 390-0663

※ 원고가 게재되면 문화상품권(3만원) 지급, 사전 연락 없음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 69개 업체에 성장의 길 제시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군포시가 69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 103명에게 올해 성장의 길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월 2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군포시와 군포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해 진행한 이날 설명회에는 군포지역을 비롯해 인근 도시 중소기업까지 총 69개 업체의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 안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기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8개 관계기관이 올해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안내했으며,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또, 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센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등 관계 부서는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 계획과 행정규제 신고센터 이용 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시와 주최 측은 참여 기업 관계자 모두에게 '2017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배포했으며, 이번 자료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군포시기업포털(biz.gunpo.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 390-0379

## 전기자동차 구매 시 1,900만원 지원

충전기 설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추가 지원

군포시가 2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보조금 지원)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지정 전기자동차 1대당 1천9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 등이다. 또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절차 등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제시된 차량으로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역경제과 390-0659

##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 개설

결혼이주민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군포시가 결혼이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인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을 개설한다.

시에 의하면 결혼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면 가장 희망하는 정책 서비스 분야가 취업 지원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레인보우카페 2층에 오는 3~4월 다문화 부업일감공동작업장을 개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작업장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해 운영하며 지역 기업체들로부터 소규모 일감을 받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향상을 추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주민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95-1811~2) 또는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390-0805

## 군포일자리센터 3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진명산업(주)	군포시 공단로 140번안길 24(당정동)	기계 가공, 씨링기 제작	산업기계 조립검사원 1명	주5일 08:30~17:30	연봉 2,300만원	031-455-0441
(주)공진	군포시 당정로 10(당정동)	산업용 핸들 조립 제조	CNC 선반조작원 1명	주5일 08:30~18:00	월급 165만원	031-453-8335
(주)에스에이티	군포시 엘에스로 175(산본동)	광중계기 컨트롤러	고속 저속 축중기 유지보수원 2명	주5일 09:00~18:00	연봉 2,200만원	031-450-1422
(주)위시스	군포시 고산로 211번길 12(당정동)	반도체 자동차 산업장비 검사	경영지원 사무원 1명	주5일 10:00~19:00	연봉 2,300만원	070-7019-9246
데이케어 산후조리원	군포시 산본로 394 대림프라자 4층(산본동)	산후조리원	간호사 3명/간호조무사 3명	주6일 09:00~18:00 (3교대/근무시간 협의)	월급 140만원	010-5037-9615
천일정기화물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센터(부곡동)	일반자동차 화물 운송업	물류관리 사무원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100만원	070-7166-1349
(주)콜롬방제과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85(당정동)	초콜릿 제조	영업관리 사무원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200만원	031-458-6374
무림커머스	군포시 산본로 85-20(당정동)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상거래 입출고 사원 1명	주5일 08:30~17:30	월급 170만원	031-452-0670
알파메디(주)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금정동)	헬스, 뷰티, 제품 유통	이태리, 불어 통번역가 1명	주5일 09:00~18:00	연봉 2,200만원	031-399-2200
(주)에스에이치 네트워크스	군포시 농심로 52(당정동)	금속 열처리업	제품검사원 2명	주6일(3교대) 06:00~14:00, 14:00~22:00, 22:00~06:00	월급 200만원	010-8736-6616

※ 2017년 2월 20일 기준 일자리 정보로 조기 구인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 정보는 군포일자리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 아이가 있는 풍경 어른이 되던 날

김인연 | 수리동



김민형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아프겠지, 내 새끼인데 당연히 첫눈에 뽕 반하겠지.”

당연히 어화둥둥 안고 돌아다닐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생긴 아기, 유난스러울 것 없는 무난한 임신과 출산일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난할 수 없는 아내의 신체적 변화들과 그보다 더한 출산이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쁨과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내의 비명과 바쁜 의료진들 사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에 무력감도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와 마주하는 가슴 떨리는 순간, 두둥!!

흰 태지와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 서른에 다시 낮가림이란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뽕앙고 탕탕한 피부가 아니라 쭈글쭈글하고

표현하기 힘든, 처음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아이 이마에 뽕뽕하라고 하시더군요. 하하하! 내내 가슴 졸이다 만난 아이에게 느낀 서먹함이란.

이제는 세상 둘도 없이 예쁜 내 새끼, 내 강아지지만 초보 아빠에겐 두려움과 서먹함으로 가득했던 그날이었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으려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도대체 뭘 찍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크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너를 처음 만나던 날, 아빠가 처음 되던 날의 아빠는 너보다 더 아기였었다고, 하지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 날 이후 어른이 되었다고,

사랑한다, 민형아!

### 출생의 기쁨 육아의 지혜, 함께 나눠요

군포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시정소식지 <군포소식>을 통해 출생의 기쁨, 육아의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우리 아이를 만난 그 날의 특별한 기억, 우리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육아 비법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분들의 개성 넘치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군포소식에 여러분의 출생·육아 소식을 게재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기고) 부탁드립니다.

#### 아이가 있는 풍경, 함께 만들어가요

- **참여 방법** 이메일(gunpo-city@nate.com, han3142@korea.kr)로 전송  
※ 매월 15일까지 원고(400자 이상 1,000자 이하)와 사진(가족 또는 아이 사진) 발송
- **게재 방법** 군포소식 15면에 게재, 매월 1회 발행
- **기고 선정** 내부 기준에 의해 한 달에 1~2건 선정  
※ 기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문의** 홍보실 390-0663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포시와 군포시한의사회는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도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 군포시 거주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 30명
- **신청기간** 3월 20일(월)까지 신청
- **지원내용** 지정 한의원(5개소)에서 6개월간 한방 난임 무료치료 지원(한약, 뜸, 침 등 치료비 전액)
- **신청서류**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기타 필요 서류는 전화상담 후 추가 제출
- **접수 및 문의** 군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390-8914  
※신청 전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단신뉴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

##### 대상 눈 질환 검사비 지원

군포시는 매월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지원 사업을 펼쳐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산본보건지소는 연중 정기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후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만성질환 영양요리교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고혈압·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안(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산본보건지소가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했거나 치료의 긴급성을 근거로 한 지역 내 병·의원 추천이 있으면 대상자에게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식습관 개선, 맞춤형 운동 방법 습득, 금연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산본보건지소의 다양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gunpo.go.kr)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산본보건지소 390-8951

#### 2017년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 이하 자
- **항목** 5대암 중 해당 암종  
※ 5대암 :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 **기관** 관내 29개소 지정 검진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일요일·공휴일 검진의료기관 : 삼성조은내과, 365편한내과, 마음속내과
- **방법** 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검진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3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임산부 건강요리 및 이유식 만들기

- **일시** 3월 23일(목) 10:00
- **대상** 임산부(임신부·출산부)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18명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영양교육실
- **신청** 선착순 전화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26

####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안내

- **일시** 매주 월/금 10:00~11:20, 14:00~15:20  
3월 25일(토) 10:00~11:20
- **대상** 군포시민 누구나
- **내용**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 **신청** 선착순 전화
- **문의** 산본보건지소 390-8961, 8978

# 두드림으로 Do Dream 하라!

난타 동호회 <한얼난타>



쿵쿵쿵쿵~ 군포시 산본동에 자리한 한얼 국악예술단의 연습실에서 묵직한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 박자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울리는 소리는 경쾌하게 때론 격정적으로 들린다. 그 북소리를 따라간 곳에 군포시 난타 동호회 '한얼난타' 회원들이 있었다.

글 김은 / 사진 주효상



66 김성임 반장은 동호회에 여성밖에 없어 남성회원들과도 난타를 즐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난타의 매력을 제대로 알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든 가입을 환영한다며 힘껏 북채를 쥐어 보였다. 99

### 심장을 울리는 태초의 고동을 전하다

‘잘게 몰아간다’는 풍물용어에서 비롯된 ‘난타’는 말 그대로 북을 사정없이 두들긴다는 뜻이다. 군포시 난타 동호회 ‘한얼난타’는 2년 전 군포문화재단의 난타 교실에서 출발했다. 4개월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된 난타 교실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호회 형태로 이어오고 있다.

김성임(43) 반장은 “난타 수업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서 회원 모두 난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고 말한다.

현재는 7명의 회원이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모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맹연습한다. 정기연습 외에도 공연 일정이 잡히면 일주일에 2~3차례 이상 수시로 만나 완성도 높은 난타 공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유형열 강사는 “북은 쓰임새에 따라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짜리 외북, 여러 개를 묶은 모듬북, 큰북인 대고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초보자는 외북 하나만을 연주하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 몰입하는 순간 무아지경에 빠지다

지난해는 유독 공연이 많아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회원들. 특히 한여름에 몇 시간씩 연습하느라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공연 시간 동안 아이 팔뚝만 한 북채로 쉴 새 없이 북을 두들겨야 하기에 엄청난 체력과 근력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과 단합이 필요하다.

무대에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음악에 맞춰 신나게 북을 두들기고 나면 그만한 카타르시스가 없다고 동호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한얼난타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형열 선생님은 난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타악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는 그는 좀 더 많은 사람과 난타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호회 가입 문의 주은미 010-9172-6637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 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희망 우체통’ 군포시무한돌봄센터, 어려운 이웃 발굴 경로 다양화

군포시는 지난해 7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행정적 어려움이나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지 신청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희망 우체통’을 설치했다.

군포시무한돌봄센터가 주관해 무한돌봄센터와 11개 동 주민센터 외부에 설치된 희망 우체통은 공적 지원이 절실한 개인, 또는 어려운 이웃을 아는 시민이 엽서나 편지 형식

로 작성한 사연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무한돌봄센터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는데, 설치 이후 현재까지 5건의 사례가 접수돼 적합한 도움이 제공됐다. 따라서 희망 우체통에 엽서나 편지로 사연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만 한다.

이순형 복지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으로 함께 행복한 군포 만들기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 390-0655